

序

우리門中은 先祖 嘉善公諱 明承
께서 廣州春宮에 基業하신 翌後 幾百
星霜이 흐름에 子孫이 數多히 蕃盛하여 先塋下를 中心으로 遠近各處에
散居하고 있읍니다.

吾 金海金氏가 三十餘年前인 甲午년에 大同譜를 修刊할제 先賢들의
周旋하신바로 吾門中도 參與하였으나 지난 戊午년에 安敬公派譜를 刊行
함에 있어서는 不幸히도 여러가지 事情과 與件으로 同參치 못하였으니
恒常不安스럽고 惴懼함을 禁치못하여 오던中 近者에 幸히도 門中에 若
干의 基金이 造成되었고 門中諸賢族의 贊意도 계시여 不肖 微力하나마 大
馬의 勞를 不惜하고 三從弟銀洙 甫 와 더부러 二年에 亘하여 諸族家戶
를 督勵하여 單子를 蔑集 整理하고 名下錢은 各族自擔하고 印刷所要費
用은 宗財에서 充當하여써 乘牒을 發行하여 여러一家에게 均一히 配分
케 되었으니 千萬 多幸한 일이며 이 또한 先祖의 薩德으로 生覺합니다
다.

이번家牒을 發刊함에 있어서 諮問하여 주신 竹馬之友慶州人崔炳烈氏와
原稿를 編纂하여 주신 益洙族兄·刊行을 맡아주신 淵洙族兄諸位에 深謝

하는 바이며, 앞으로吾門中의篤睦과瑞運이蓄衍하기를祈願하면서京四派의行列錄을参考로尾錄하오니後生作名에準用하시기바랍니다。

西紀一九八五年乙丑春

後孫基洙謹識

性又益○	榮○	濟○	植○	顯○	培○	鍾○	○泰又洙
○用	○謙又燮	載又在○		○		○	
錫又鎬○		○	鎮○				
○淳		浩○		○			
東○		○	根○				
○煥又烈							

金寧君諱牧卿派世系

一 世 普忠箭

中祖牧

卿 二子

正一品)으로 **金寧**(
君의 封爵을 받으
셨다.
金寧은 元宗十一
년(一二七〇)부터
忠烈王三十四年(一
三〇八)까지 부르
던 지금 **金海君**의
예 이름 있다.
增補文獻備考 卷
四七(帝系考)에는
『金牧卿、高麗忠
宣王(一三〇九~一
三一三)朝 三重大
匡(金寧君)』이라고
하였는데 한편 英
祖三十年(一七五四
~)의 甲戌譜과 그
리고 正祖二十三年
(一七九九)의 己
未譜에는『忠惠王
時(一三三一)從位
一三四〇~一三四四
人이라 하였다.
만 난(一九六六)
에 蔡(金寧君)은
失傳했더니 墓所는
慶尙北道 壯岩里
『金政承墓』에 葬
于 萬山城안에 있는
郡稱 化北面 山城
道 北面 城 有 在

二 世 子 到 門 文 副使公

號는 竹庵이시니
고려 忠定王(一三
四九)~(一三五一)朝
에 당시 恭愍王이
세子의 몸으로 元
나라에 들어가 宿
衛할 때 版圖判
書로서 隨從하시다.
가 귀국 후 인 忠定
王三年(一三五二)
十月에는 知密直司
事가 되었다.
이듬해(一三五二
~) 六月에 **公良王**
이 即位하자 世子
의 徒從功 一等
에 下賜를 받았으
며 義成 德泉倉의
提調官으로 轉補되
면 評理에 忠勤
節 匡輔功臣 金寧
君의 封號를 받으
자이다.

三 世 子 観 捻

子 到 門 文 副使公
벼슬은 奉常大夫
戶 曹摠郎이 신바
孫 永貞의 貴로써
通政大夫 戶曹參議
(正三品)에 追贈
벼슬은 奉常大夫
戶 曹摠郎이 신바
孫 永貞의 貴로써
三司副使(從四品)
를 역임하였다. 이
제하여 오다가 朝
鮮太宗元年(一四
〇一)에 司平府랑
曹에 고쳐졌고 同五年
(一四〇五)에는 戶
英祖十年(一七三
四)의 甲寅譜에
이르기를 『諸家譜
牒에는 引進副使
또는 尚書라 써있
고 한 바 있다.
다引進副使는
려 때 國왕이 평소
거치하는 便殿 앞문
소속되어 있었던 從
五品 官이 있고 나
은 時代의 正三品官
을 尚書는 雖高
配位는 花이 친 山
藩士射 이(一作父)는
『祖判書』에서
『唐城郡夫人
南陽洪氏』이시니
祖父는 『從琪
君書』는 洪氏이
藩主로 『安祐와
元나라에 더불
어 으로 順宗帝가
가셨다가 使臣
와 함께 『正唐城
會判書』는 金寧君
에 대한 헌신과
관심을 드러낸다.
한편 『金寧君
墓碣文』을 보

四 世 子 孝 源

字는 德芬이시니
(明 太祖 洪武三
에 出生하여 朝鮮
三九三)에 文科及
參議(正三品)에
벼슬은 奉常大夫
戶 曹摠郎이 신바
孫 永貞의 貴로써
三司副使(從四品)
를 역임하였다. 이
제하여 오다가 朝
鮮太宗元年(一四
〇一)에 司平府랑
曹에 고쳐졌고 同五年
(一四〇五)에는 戶
英祖十年(一七三
四)의 甲寅譜에
이르기를 『諸家譜
牒에는 引進副使
또는 尚書라 써있
고 한 바 있다.
다引進副使는
려 때 國왕이 평소
거치하는 便殿 앞문
소속되어 있었던 從
五品 官이 있고 나
은 時代의 正三品官
을 尚書는 雖高
配位는 花이 친 山
藩士射 이(一作父)는
『祖判書』에서
『唐城郡夫人
南陽洪氏』이시니
祖父는 『從琪
君書』는 洪氏이
藩主로 『安祐와
元나라에 더불
어 으로 順宗帝가
가셨다가 使臣
와 함께 『正唐城
會判書』는 金寧君
에 대한 헌신과
관심을 드러낸다.
한편 『金寧君
墓碣文』을 보

五 世 子 孝 源

字는 德芬이시니
(明 太祖 洪武三
에 出生하여 朝鮮
三九三)에 文科及
參議(正三品)에
벼슬은 奉常大夫
戶 曹摠郎이 신바
孫 永貞의 貴로써
三司副使(從四品)
를 역임하였다. 이
제하여 오다가 朝
鮮太宗元年(一四
〇一)에 司平府랑
曹에 고쳐졌고 同五年
(一四〇五)에는 戶
英祖十年(一七三
四)의 甲寅譜에
이르기를 『諸家譜
牒에는 引進副使
또는 尚書라 써있
고 한 바 있다.
다引進副使는
려 때 國왕이 평소
거치하는 便殿 앞문
소속되어 있었던 從
五品 官이 있고 나
은 時代의 正三品官
을 尚書는 雖高
配位는 花이 친 山
藩士射 이(一作父)는
『祖判書』에서
『唐城郡夫人
南陽洪氏』이시니
祖父는 『從琪
君書』는 洪氏이
藩主로 『安祐와
元나라에 더불
어 으로 順宗帝가
가셨다가 使臣
와 함께 『正唐城
會判書』는 金寧君
에 대한 헌신과
관심을 드러낸다.
한편 『金寧君
墓碣文』을 보

字는 德芬이시니
(明 太祖 洪武三
에 出生하여 朝鮮
三九三)에 文科及
參議(正三品)에
벼슬은 奉常大夫
戶 曹摠郎이 신바
孫 永貞의 貴로써
三司副使(從四品)
를 역임하였다. 이
제하여 오다가 朝
鮮太宗元年(一四
〇一)에 司平府랑
曹에 고쳐졌고 同五年
(一四〇五)에는 戶
英祖十年(一七三
四)의 甲寅譜에
이르기를 『諸家譜
牒에는 引進副使
또는 尚書라 써있
고 한 바 있다.
다引進副使는
려 때 國왕이 평소
거치하는 便殿 앞문
소속되어 있었던 從
五品 官이 있고 나
은 時代의 正三品官
을 尚書는 雖高
配位는 花이 친 山
藩士射 이(一作父)는
『祖判書』에서
『唐城郡夫人
南陽洪氏』이시니
祖父는 『從琪
君書』는 洪氏이
藩主로 『安祐와
元나라에 더불
어 으로 順宗帝가
가셨다가 使臣
와 함께 『正唐城
會判書』는 金寧君
에 대한 헌신과
관심을 드러낸다.
한편 『金寧君
墓碣文』을 보

六 世 子 震 琴

字는 德芬이시니
(明 太祖 洪武三
에 出生하여 朝鮮
三九三)에 文科及
參議(正三品)에
벼슬은 奉常大夫
戶 曹摠郎이 신바
孫 永貞의 貴로써
三司副使(從四品)
를 역임하였다. 이
제하여 오다가 朝
鮮太宗元年(一四
〇一)에 司平府랑
曹에 고쳐졌고 同五年
(一四〇五)에는 戶
英祖十年(一七三
四)의 甲寅譜에
이르기를 『諸家譜
牒에는 引進副使
또는 尚書라 써있
고 한 바 있다.
다引進副使는
려 때 國왕이 평소
거치하는 便殿 앞문
소속되어 있었던 從
五品 官이 있고 나
은 時代의 正三品官
을 尚書는 雖高
配位는 花이 친 山
藩士射 이(一作父)는
『祖判書』에서
『唐城郡夫人
南陽洪氏』이시니
祖父는 『從琪
君書』는 洪氏이
藩主로 『安祐와
元나라에 더불
어 으로 順宗帝가
가셨다가 使臣
와 함께 『正唐城
會判書』는 金寧君
에 대한 헌신과
관심을 드러낸다.
한편 『金寧君
墓碣文』을 보

字는 德芬이시니
(明 太祖 洪武三
에 出生하여 朝鮮
三九三)에 文科及
參議(正三品)에
벼슬은 奉常大夫
戶 曹摠郎이 신바
孫 永貞의 貴로써
三司副使(從四品)
를 역임하였다. 이
제하여 오다가 朝
鮮太宗元年(一四
〇一)에 司平府랑
曹에 고쳐졌고 同五年
(一四〇五)에는 戶
英祖十年(一七三
四)의 甲寅譜에
이르기를 『諸家譜
牒에는 引進副使
또는 尚書라 써있
고 한 바 있다.
다引進副使는
려 때 國왕이 평소
거치하는 便殿 앞문
소속되어 있었던 從
五品 官이 있고 나
은 時代의 正三品官
을 尚書는 雖高
配位는 花이 친 山
藩士射 이(一作父)는
『祖判書』에서
『唐城郡夫人
南陽洪氏』이시니
祖父는 『從琪
君書』는 洪氏이
藩主로 『安祐와
元나라에 더불
어 으로 順宗帝가
가셨다가 使臣
와 함께 『正唐城
會判書』는 金寧君
에 대한 헌신과
관심을 드러낸다.
한편 『金寧君
墓碣文』을 보